

# 5·18! 오페라로 기억하다

### 펠리체솔리스트, 내달 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오페라 '무등등등'과 음악·연극·무용 콜라보 무대 계엄군에 학살 임산부 죽음 모티브...민중시 결들여

“오, 난파당한 조국여/ 아직도 우리는 애국가  
를 부르고 있네/ 바다에 빠지지 않은 시신을 신  
고/ 어떤 배도 광주 근처를 지나가지 않네/ 어떤 등  
대도 광주를/ 비취 주지 않고 있네(임동학 ‘매장시  
편-아들 아리아’ 중)”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죽었어요.../ 당  
신은 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갔을까요./ 아니 이전  
당신의 전부도/ 빼앗아 갔을까요/ 셋방살이 신세  
였지만/ 정말로 우린 행복했어요/ 난 당신에게 잘  
해 주고 싶었어요/ 아아,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뱉  
몸으로/ 죽은 거예요.”(김준태 ‘아아, 광주여!-팔  
의 죽음 아리아’ 중)

임동학, 조태일, 객재구 그리고 김준태. 대표적  
인 민중시인들의 시가 음악과 무용을 입고 오페라  
로 태어난다. 이들 시인들의 광주를 다룬 작품은 지  
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돼 5·18의 참상을 알리는  
데 기여를 했다.

펠리체솔리스트(대표 강양은)는 오페라 '5·18!

오페라로 기억하다'를 다음 달 9일(오후 7시 30  
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펠리체솔리스트가 5·18민중항쟁을 알리기 위해 3  
년째 오페라 '무등등등'을 수정해 올리고 있는 무대  
이다.

공연에서 민중시인들의 시는 오페라 중간중간에  
삽입돼 항쟁 당시의 절절한 슬픔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장한 엄숙미와 장엄함을 선사한다.

작품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학살당한 임산부  
(서혜원 역)의 죽음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약혼자  
인 시민군을 찾으러 집밖에 나섰던 임산부는 일대  
를 수색중이던 계엄군의 총검에 찔려 사망한다. 이  
에 분개한 그녀의 부모(조재경, 홍선희)와 약혼자  
(고규남)는 투쟁 대열에 합류하고 여기에 구두둑  
이 소년(이호준), 평범한 광주 시민 등도 동참한  
다.

그러나 '정의'라는 이름의 민중항쟁은 지난하  
기만 하다. 불의에 항거했던 이들의 투쟁의 몸짓은 계



펠리체솔리스트 단원들이 '5·18! 오페라로 기억하다' 작품을 공연하는 장면.

(펠리체솔리스트 제공)

엄군의 총칼에 무참히 무너진다.

이번 작품은 10일간의 광주항쟁의 역사에 김선  
철 작곡가의 음악 '무등등등'을 결들였다. 연극 연  
출가 차두옥이 줄거리를 재구성했으며 영화감독 박  
기복의 희곡 작품을 차용했다. 여기에 나빌레라무  
용단의 무용까지 더해져 춤과 음악, 문학이 한데 어  
울러지는 융복합 무대로 펼쳐진다.

또한 무대에서는 김지하의 시 '황토길'을 아리아  
와 3중창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객재구의 '대동세

상-진도아리랑 곡조'를 합창으로, 임동학 시인의  
'매장시편' 및 조태일의 '풀씨'는 아리아로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남주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  
을', 문병란의 '광주여 영원하라', 김준태의 '아아,  
광주여!' 등이 마련돼 있다.

한편 아버지 역을 맡은 바리톤 조재경은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에서 졸업했다. 현재 호남  
신학대 객원교수로 있으며 전남대에 출강하고 있  
다. 어머니 역의 소프라노 홍선희는 이태리 파르마

음악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호남신학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펠리체솔리스트 강양은 대표는 "작품을 통해 대동  
세상을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80년 광주의 아픔과 상흔의 역사에 공감  
해주시고, 뜨겁게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S석 2만원, R석 3만원.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국중효 작가의 '삶을 그리다'

### 국윤미술관 8월 4~25일 '생명의 순환'·신작 소개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미술관 설립자인 국중효 작가의 '생명의 순환' 시리즈 작품과 새로운 신작들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제2전시실에서 연다. 8월 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주제는 '삶을 그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작품 외에도 최근  
에 작업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작품들은 투박한 질감의 단순한 이미지에서  
발현되는 삶의 이야기와 생명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 가운데 '봄의 소리'는 계절의 순환과 맞물린 불변  
의 진리와 삶의 존엄 등을 말해준다. 임동설현의 추위를 뚫고서도 꽃망울을  
피워내는 봄꽃의 생명력과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는 들녘에서 부지런히 농  
사일을 하는 아낙들의 손놀림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윤영월 관장은 "'삶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리 삶에  
드리워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감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했  
다"며 "아울러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목포대 명예교수인 국 작가는 오지호미술상 심사위원, 이인성 미술상 심



'봄의 소리'

사위원,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일·월요일 휴무. 자세  
한 내용은 국윤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 갯벌 친구들아, 오래오래 같이 살자

### 박상희 '갯벌 댄스 경연대회' 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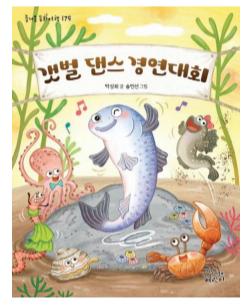
댄서가 꿈인 승어와 친구 농게는 갯벌이 오염  
돼 부모를 잃었다. 농게는 승어에게 정정 지역 증  
도로 이사를 가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  
다. 승어와 농게는 살아야 갯벌을 버리고 증도로  
향한다.

그러나 문제는 증도의 갯벌 친구들이 승어와  
농게를 보자 병을 옮긴지 모른다고 잔뜩 경계를  
한다. 과연 승어와 농게는 증도에서 살 수 있을  
까?

박상희 동화작가가 펴낸 '갯벌 댄스 경연대회'  
(가문비 어린이)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이야  
기한다.

작가는 문화기행으로 증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본 쟁쟁어의 모습에서 인상을 받아 작품을 쓰게  
됐다.

"그때 알았습니다. 쟁쟁어는 갯벌이 깨끗하지  
않으면 살지 않는다는 것ですよ. 사람보다 환경을  
따진다니 이 녀석들,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박 작가는 증도에서 같이 살아가는 갯지렁이와



바지락, 농게, 승어,  
낙지도 눈여겨보았다.  
그러면서 바다를 잘 지  
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갯벌 친구들에게 해 주  
고 싶었다.

박 작가는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겠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행복해  
진답니다"라며 "갯벌 친구들아, 오래오래 같이  
살자"라고 말한다. 이밖에 책에는 '마트에서 잠  
깐', '핸드폰 타령', '기웃기웃 바구미', '거울 좀  
봐봐', '웅프라우에서' 등의 작품도 실려 있다.

한편 박 작가는 광주대 문장교과를 졸업했으며 영  
남문화상 동화 부문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다. 광  
주전남야동문학인협회 백일장(동시 부문) 대상,  
목포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동화집 '아빠와 함께 떠  
나는 나주 여행', '이모티콘 할머니', '바스락 바스  
락 후드통', '무궁화 할아버지', 동시집 '기웃기웃  
보름달'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재즈 신예들의 사중주

### 더브로컴퍼니 '최무현 쉼넷' 내달 2일 서빛마루 문예회관

재즈음악은 미국의 인종차별과 불평등 사회에 반  
발하며 태어난 만큼 '자유'를 표방한다. 즉흥적 흥  
얼거림인 '스캇'과 자유분방한 리듬은 일상의 무료  
함과 답답함을 잊게 한다.

더브로컴퍼니는 '재즈 인 광주, 최무현 쉼넷'을  
다음 달 2일 오후 7시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재즈예술계의 떠오르는 신예들  
의 공연을 쉼넷(사중주)으로 구성해 피아노, 플  
룻, 베이스, 드럼의 사운드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4인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라 미  
국의 색소폰니스트이자 작곡가 존 콜트레인의 노래  
부터 피아노의 거장 오스카 피터슨, 미국 보컬 엘라  
피츠제럴드 등의 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드럼을 맡은 최무현은 광주 출신으로 백석예술대

를 최우수 졸업했다. 그동안 최무현 쉼넷, 강재훈  
트리오, 안김 트리오 등 다수의 재즈클럽에서 연주  
해 왔다. 프로젝트 앨범 'Light in Night' 등에서  
드럼 세션으로 활약했으며 백석팝스오케스트라에  
서 2021, 2022년 드러머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  
다.

한편 피아노를 맡은 지민도로시(박지민)는 유튜  
브 채널 '지민도로시(구독자 22.3만 명)'를 운영하  
고 있다. 박씨는 버클리 음대를 전액장학생으로 졸  
업했으며 2017년 올드타임 피아노 콘테스트 세계  
경연에서 2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김지운의 플룻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김  
씨는 뉴욕 뉴스쿨 음대를 졸업한 뒤 뉴욕대학교 재  
즈학 석사를 마쳤으며 앨범 'Rising'을 발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베이스 이동민



지민도로시

김지운

은 동아방송예술대를 졸업한 뒤 자라섬재즈페스티  
벌 2017년 라이징스타, 재즈피플 라이징스타 베이  
스 부문 등에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공연을 준비한 최무현은 "이번 무대는 국내 재즈  
공연으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규모와 사운드로 구  
성했다"며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여려  
아티스트들과 사중주 무대를 구성했으니 많이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석 4만4000원. 인터파크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신안선 만들기' 온라인 체험 진행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1일~8월 4일

지난 1975년 신안군 증도 해역에서 발견된 신  
안선은 원나라 무역선이다. 현재 선체 일부는  
2002년부터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처리  
되고 있다. 집에서 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과 유튜  
브(www.youtube.com/@seamuse1994)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며 체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 해양문화유산인 신  
안선을 나무 모형으로 조립하는 '신안선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여름  
방학을 맞아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  
인 체험교육 '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해양문화  
재'에 참여할 어린이 4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31일 오전 10시부터 8월 4일까지 국립해양문화  
재연구소 누리집)

'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해양문화재'는 신안선

을 나무 모형으로 조립하는 체험과 풀과 참기름  
을 담았던 고려청자 매병(梅瓶)의 버드나무·모  
란 문양을 색칠해 보는 '매병 만들기'로 구성돼  
있다. 집에서 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과 유튜  
브(www.youtube.com/@seamuse1994)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며 체험할 수 있다.

참여 확정 신청자들은 체험교구 2종을 배송비  
없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  
램은 무더위에 지친 어린이들이 즐거운 여름방학  
을 보낼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마련했다"며 "앞  
으로도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풍성한 전시·교육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